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박영숙 개인전 《보라, 저 여자가 노래하고 춤춘다》



박영숙 개인전 《보라, 저 여자가 노래하고 춤춘다》(아라리오갤러리 서울, 2026) 전시전경.

참여작가 : 박영숙(1941-2025)
전시제목 : 《보라, 저 여자가 노래하고 춤춘다》
전시일정 : 2026년 2월 25일(수) - 4월 18일(토)
전시장소 :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중로구 울곡로 85) 1F, B1F, 3F
전시작품 : 42점(사진 41점, 영상 1점) 외 아카이브 자료

[문의]

박미란 팀장, E. miran.park@arariogallery.com

자료목차	1. 전시개요	-----	2
	2. 작가소개	-----	2-3
	3. 전시서문	-----	3-7
	4. 작품소개	-----	8-11
	5. 전시전경	-----	11-13
	6. 작가약력	-----	13-16
	[별첨1] 김혜순의 시 「꽃이 그녀를 흔들다」	-----	17
	[별첨2] 김혜순의 시 「그곳 2—마녀 화형식」	-----	17
	[별첨3] 김영 목사의 축시 「나의 친구 박영숙 작가」	-----	18

1. 전시개요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은 2026년 2월 25일(수)부터 4월 18일(토)까지 박영숙(1941-2025) 개인전 《보라, 저 여자가 노래하고 춤춘다》를 개최한다. 한국 현대사진사 및 페미니즘 미술의 발전에 큰 자취를 남긴 사진작가 박영숙의 별세 이후 선보이는 첫 전시이다. 본 전시는 그의 사진에 포착된 '여자'의 주체성을 회고적으로 성찰한다. 여성을 전면에 내세운 사진으로 남성중심주의적 관습 및 부조리한 권력 구조에 문제를 제기해 온 작가의 작품 인생을 되새기는 자리다. 박영숙의 화면은 사진의 역사 속에서 대상화되어 온 여성을 자기서사의 저자이자 발화의 주체로 격상시킨다. 사회적으로 규정된 정체성을 탈피하여 스스로를 재해석한 여자들이 오늘의 전시장에 소환된다. 전시의 제목은 시인 김혜순이 작가에게 선물한 시 「꽃이 그녀를 흔들다」[별첨1]의 시구로부터 차용했다. 해당 시는 꽃을 피우는 땅의 기운을 여자의 몸에서 피어나는 광기에 빚대어 표현한다. 시구에 등장하는 '저 여자'는 박영숙 본인을 포함하여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역사 속 모든 대상화된 여성들을 지시한다.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의 1층과 지하1층에서는 1998년부터 2005년 사이 발표한 그의 대표작 중 <육체 그리고 성>(1998), <미친년들>(1999), <상실된 성>(2001), <감힌 몸, 정처 없는 마음>(2002), <내 안의 마녀>(2005), <꽃이 그녀를 흔들다>(2005) 연작을 만나볼 수 있다. 3층에서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작품세계를 통하여 작가의 주제의식이 태동한 초기 궤적을 좇는다. 그의 작품세계 속 광기 어린 '여자'의 원형을 목격할 수 있는 <장면>(1963-67) 연작과 <마녀>(1988), <장미>(1988) 등 1960-80년대 흑백 사진 연작이 중심 축을 이룬다. 더불어, 아날로그 슬라이드 필름 영상 방식으로 제작된 영상 작품 <자궁의 노래: 이제 크신 어머니 자고 깨니>(1994, 2026 디지털 판본 제작)를 디지털 방식으로 복원하여 같은 층에서 선보인다.

2. 작가소개



트렁크갤러리(2007-2018) 사무실의 박영숙.

©박영숙 에스테이트.

[유족 및 아라리오갤러리 제공]

박영숙은 여성의 신체를 작업의 전면에 위치시켜 여성의 몸과 자아에 대한 사회적 억압, 부조리, 성적 권력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1963년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한 뒤 1986년 숙명여자대학교 사진디자인학과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학부 재학 시절인 1961년 '현대사진연구회'의 동인으로 활동하였으며 1962년 교내 사진 동아리 '숙미회'를 창립하여 초대회장을 맡았다.

1966년 중앙공보관에서 첫 개인전을 연 이후, 1975년 유엔(UN) 제정 세계여성의 해를 기념하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초청으로 개최한 개인전 《평등, 발전, 평화》에서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담은 사진

작품을 선보여 주목 받았다. 이후 여성의 삶을 주제로 한 시각 언어를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한 그는 40대에 들어선 1981년 경 페미니스트로서의 정체성을 본격적으로 확립하였다. 페미니스트 단체 '또 하나의 문화'(1984년 설립)에 참여했고 1992년부터 민중미술 계열의 페미니스트 단체 '여성미술연구회'(1986-1995)에 가입하여 페미니즘 운동에 앞장섰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경기도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한미사진미술관 등 유수의 국내외 미술관이 개최한 전시에 참여했으며 2002년 광주비엔날레 《멈춤, 止, PAUSE》에서 작품을 선보였다.

2006년부터 한국 사진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진 갤러리인 트렁크갤러리(2007-2018)를 설립 및 운영하는 한편 여성 미술가이자 사진 작가, 페미니스트로서 열정적인 활동을 지속했다. 박영숙은 2020년 이중섭미술상, 2025년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을 수상했다. 그의 작품은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영국), 국립현대미술관(한국), 서울시립미술관(한국), 서울시립사진미술관(한국), 경기도미술관(한국), 광주시립미술관(한국), 청주시립미술관(한국), 한미사진미술관(한국), 국가인권위원회(한국), 이화여자대학교(한국), 숙명여자대학교(한국), 아라리오컬렉션(한국) 등 주요 미술관 및 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3. 전시서문

※ 이미지 사용 시 저작권 및 제공처 표기: ©박영숙 에스테이트. [유족 및 아라리오갤러리 제공]

보라, 저 여자가 노래하고 춤춘다

박미란 | 아라리오갤러리 팀장

박영숙은 일찍이 카메라를 든 여자였다. 그 사실이 카메라 앞에 선 여성들로 하여금 렌즈 너머를 당당히 응시하도록, 그리하여 스스로의 이미지를 통제하는 힘을 갖도록 고무시켰다. 사진의 역사 속에서 대상화된 여성은 이제 자기 서사의 저자이자 발화의 주체로서 거듭난다. 시선의 권력은 전복되고, 신체는 동시대적 담론의 장으로 변모한다. 이성과 도덕이라는 허울로 위장한 남성중심주의 사회의 부조리 앞에서 박영숙의 여자들은 차라리 '미친년'이 되기를 자처한다. 이들은 주저 없이 웃고름을 풀어 헤치고 내면의 '마녀'를 일깨운다. 보라, 저 여자를—미친 듯이 개화하는 영혼을.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의 전시 《보라, 저 여자가 노래하고 춤춘다》는 한국 현대사진과 페미니즘 미술의 발전에 큰 자취를 남긴 박영숙의 별세 이후 선보이는 첫 개인전이다. 본 전시는 작가의 주제의식이 나아온 경로를 되돌아보고, 그 정신을 오늘의 시공간에 부활시키고자 마련되었다. 사회적 억압에서 탈피하여 스스로 재탄생한 여자들이 전시장에 소환된다. 출품작의 시기 범주는 1963년부터 2005년까지 40여 년의 흐름을 폭넓게 아우른다. 전시의 동선은 '미친년'과 '마녀'의 전성기를 방문하는 한편, 그들의 원형을 좇아 보다 오래된 흑백의 풍경을 탐색하는 여정으로 전개된다.



왼쪽부터 <미친년들 #1>, <미친년들 #5>, <미친년들 #7>(1999).

품을 것이 없어 공단 베개를 끌어안고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는 여자, 한복 치마 끈을 풀어 헤치자 옥죄던 가슴이 열려 신나게 웃어대는 여자, 살림과 육아의 난장 속에서 기어코 외모를 단장한 채 정면을 쏘아보는 여자. 세상은 그런 여자들 앞에 '미친년들'이라는 멸칭을 쉽게도 내어준다. 박영숙의 대표작인 '미친년 프로젝트'(1999-2019)는 남성 위주의 사회적 관습에 의하여 인내와 침묵을 강요당해 온 역사 속 모든 여인들을 위하여 시작되었다. 세기말 발표한 <미친년들>(1999) 이후 이십여 년간 다양한 연작으로 변주된 해당 프로젝트는 "자신을 미치게 하는 고통이 무의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모른 채, 정신을 놓아버릴 정도의 고통들을 겪어 내며 참고 또 참았던," 그렇기에 "미친년이 되고 처녀 귀신이 될 수밖에"¹ 없었던 과거의 여자들을 위하여 오늘의 여자들이 대신 수행하는 몸짓이자 기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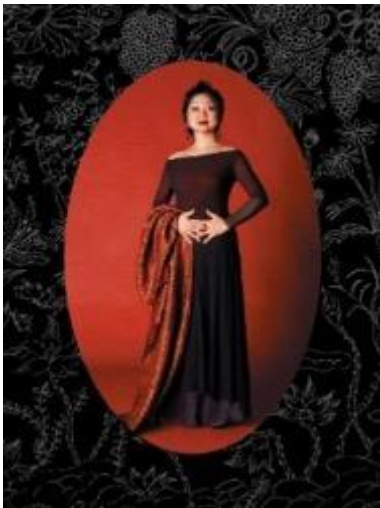
왼쪽부터 <육체 그리고 성 #2>, <육체 그리고 성 #1>, <육체 그리고 성 #3>, <육체 그리고 성 #7>(1998).

박영숙 개인전 《보라, 저 여자가 노래하고 춤춘다》(아라리오갤러리 서울, 2026) 전시전경.

한편, '미친년 프로젝트'의 등장을 예비하는 포토몽타주 연작 <육체 그리고 성>(1998)은 중년 여성의 나체를 전면에 선보인다. 얼굴이 있을 자리가 사물의 형상으로 도치된 채, 멧어든 춤사위의 한 대목과

¹ 박영숙, 「미친년 프로젝트에 대하여」(1999), 박영숙·김영옥 편저, 『미친년 프로젝트』(서울: 상경커뮤니케이션, 2009), pp. 65-67.

같이 단아한 자세를 취한 모습이다. 머리를 대신하는 사물들—가사 노동의 상징이자 진취적 생동감을 표현하는 다리미, 수분기 머금은 생명력 혹은 욕망의 기호로 읽히는 사과, 생명의 잉태를 은유하는 동시에 한시적 찬란함을 자랑하는 꽃송이들—은 여성의 양가적 속성을 지시하는 메타포이다. 선명한 색채를 드러내는 사물들이 기호화된 여성성을 암시한다면, 흑백의 얼굴 없는 신체는 그 이면에 실존하는 여자의 사실주의적 초상이다. 출산의 흥터와 늘어진 살을 고스란히 드러낸 여자의 몸은 성적 욕망에 앞서 인간적 유대감에 호소한다.



<내 안의 마녀 #5>
2005
C-프린트
170 x 127 cm

박영숙은 국내외 다양한 분야 페미니스트 및 다각도의 성적 지향을 지닌 소수자들과 교류하면서 '미친년 프로젝트'의 외연을 확장해 나아갔다.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자 자신에게조차 왜곡되거나 은폐된 성의 관념에 관하여 말하는 <상실된 성>(2001) 연작과 반복되는 일상의 가사 노동을 행하는 여자들이 '미친년의 시공간'을 떠올리고 상념에 젖어드는 순간을 포착한 <감힌 몸, 정처 없는 마음>(2002) 연작은 주위 여성들의 경험을 작품의 서사에 녹여낸 결과물이다. 한편 <내 안의 마녀>(2005) 연작은 주체적인 시선과 지혜, 창의력을 지닌 여자의 초상을 통하여 현대적 마녀의 재임을 묘사한 액자식 구성의 화면을 선보인다. 타원형의 중심부와 식물 도상이 장식된 배경부가 대비를 이루며 극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²



<꽃이 그녀를 흔들다 #14>
2005
C-프린트
120 x 120 cm

꽃이 흐드러진 풍경 가운데 놓인 여성 신체를 포착한 <꽃이 그녀를 흔들다>(2005) 연작은 시인 김혜순이 박영숙에게 선물한 동명의 시와 공명한다. 해당 시는 꽃을 피우는 땅의 기운을 여자의 몸에서 피어나는 광기에 빚대어 표현한다. 시구에 화답하듯, 박영숙의 사진은 꽃과 여자 양측에 공통적으로 덧씌워진 연약함과 아름다움이라는 고정관념을 전복시키기를 시도한다. 꽃의 군집이 이루어 내는 시각적 강렬함을 드러내고, 여자의 몸짓과 시선에 초점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서다. 화면 속 꽃과 여자는 더 이상 관조의 대상이 아니라, 내면에서 자라난 광기를 터뜨려 스스로 해방된 발화의 주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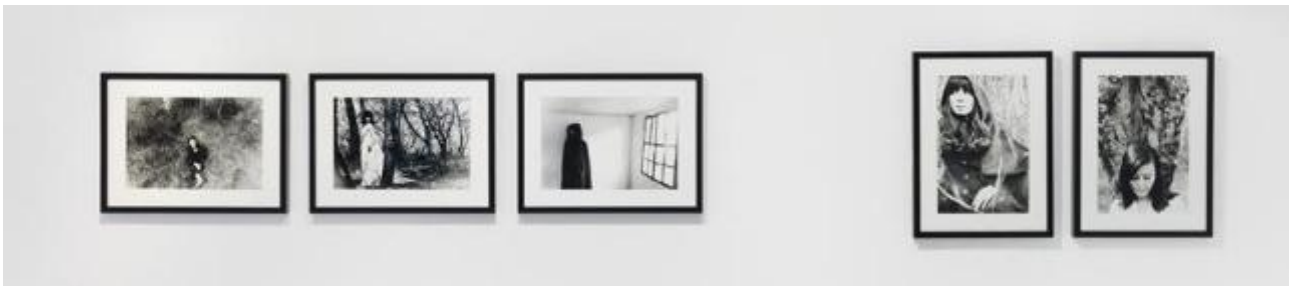
박영숙의 1960–80년대 사진들은 훗날 '미친년'과 '마녀'의 이미지로 정립된 여자의 원형에 관한 단서를 제공한다. 흑백 사진 여섯 장을 나란히 이어붙인 포토콜라주 작품 <마녀>(1988)의 좌측 하단부에는

² 배경부의 식물 도상 디자인에 윤석남이 참여했다.

다음의 손글씨가 적혀 있다. “중세, ‘마녀사냥’에 충격받아 페미니스트 되다.” 글귀가 증언하듯 박영숙이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로 규정한 것은 마녀사냥의 역사를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대면한 순간부터였다. 김혜순의 시 「그곳 2—마녀 화형식」이 그러한 영감의 동인이 됐다. <마녀>의 화면 속 두건을 눌러쓴 여자의 모습은 초기 연작 <장면>(1963-67) 가운데서도 발견된다. 해당 연작은 이십 대의 박영숙이 감각적이고도 독창적인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의 면면을 진솔하게 담아낸다.



<마녀>(1988) 벽면 설치 모습. 박영숙 개인전 《보라, 저 여자가 노래하고 춤춘다》(아라리오갤러리 서울, 2026) 전시전경.



왼쪽부터 <장면 #19>(1964), <장면 #24>(1965), <장면 #40>(1966), <장면 #38>(1966), <장면 #2>(1963).
박영숙 개인전 《보라, 저 여자가 노래하고 춤춘다》(아라리오갤러리 서울, 2026) 전시전경.

<장미>(1988)는 장미꽃과 만삭의 몸을 촬영한 흑백 사진 다섯 장을 세로로 나열한 포토콜라주로, 강은교의 시 「이름 모르는 꽃」을 재해석한 작품이다. 반전 기법을 활용하여 같은 필름을 다른 명도로 반복 인화한 뒤, 하나의 화면 위에 순차 배치한 구성이 시간의 흐름을 연상시킨다. 제 몸에 가시를 품은 장미는 망울을 터뜨려 개화한 강인함의 상징이자 새로운 씨앗을 예비하는 생명력의 응집체라는 점에서 여성의 자궁과 동일시된다. <장미>에 나타난 만삭의 몸은 훗날 영상 작품인 <자궁의 노래: 이제 크신 어머니 자고 깨니>(1994)에 재차 등장한다.³ 한영애의 구음(口音)이 서사의 흐름에 동행하는 가운데, 영상은 거대한 자연의 풍경과 만삭의 여성 신체, 아이의 탄생을 순차적으로 보여준다. 이내 격양된 분위기 속에서 도시의 일상을 긴박하게 지난 화면은 말미에 이르러 온화한 산의 능선과 자연에 치성을 올리는 노모들의 모습으로 끝맺는다. 자연에서 출발하여 자연으로 돌아가는 수미상관식 서사를 통하여, 해당 작품은 자궁을 경유하는 탄생의 사건을 대자연의 순환 원리에 결속시키는 시각적 제의를 구현한다.

³ 동료 작가 윤석남과 가수 한영애, 목사 김영과 함께 진행한 동명의 프로젝트 일환으로 제작되어, 김홍희가 기획한 전시 《여성, 그 다름과 힘》(한국미술관, 1994)에 선보인 작품이다. 아날로그 슬라이드 필름 영사 방식으로 제작된 해당 영상을 디지털 판본으로 복원한 결과물이 본 전시에 처음으로 공개된다.

박영숙은 우리의 사회가 존중하지 않은 여자들을 연민했다. 특정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규정된 역할과 책임을 강요하는 관습의 부당함에 분노했다.⁴ 그는 시대의 과오 아래 파묻힌 서사를 발굴하여 세상에 꺼내어 놓는 것이 페미니스트의 역할이라고 믿었다.⁵ 이에 사진의 언어를 도구 삼아 그 이야기를 과거와 현재, 미래를 가로지르는 시간 축 위에 박제하였다. 여자의 주체성을 불온한 광기로 치부할 것이라면, 스스로 기꺼이 '미친년'이 되고 '마녀'가 되겠다는 선언의 일환으로서다. 보라, 박영숙의 여자들이 노래하고 춤춘다. 저 여자의 광기가 오늘의 찬란한 꽃으로 핀다.



왼쪽은 <장미>(1988). 오른쪽은 <자궁의 노래: 이제 크신 어머니 자고 깨니>(1994, 2026 디지털 판본 제작) 전시전경. 사진 상 가장 오른쪽 벽면에 걸린 것은 한영애의 구음 전개 방식을 구상한 노트의 사본이다.

⁴ 가부장적 정상성에서 배제된 존재들에 주목하는 박영숙의 페미니즘은 생물학적 여성뿐만 아니라 성적 소수자 전반을 포용한다.
⁵ 박영숙, 앞 글, p. 67.

4. 작품소개

※ 이미지 사용 시 저작권 및 제공처 표기: ©박영숙 에스테이트. [유족 및 아라리오갤러리 제공]

대표 이미지



<미친년들 #5>
1999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150 x 120 cm

<미친년들>(1999)은 '미친년 프로젝트'(1999-2019)의 시작을 알린 기념비적 연작이다. 총 7점의 <미친년들> 연작은 1999년 6월 18일 박영숙의 작업실 '제3공간'에 모인 7인의 여성 예술인에 의하여 진행된 치유적이고도 제의적인 퍼포먼스의 기록이다. 이 퍼포먼스는 박영숙이 여성 정신과 의사와 '미친 상태'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사진에 담긴 7인의 여성은 자신 내면에 존재하는 '미친 여자'의 광기를 표현하며 해방감을 느꼈다.

'미친년'이라는 용어는 가부장적 기대에서 벗어난 여성들에 대한 멸시과 두려움을 동시에 내포한다. 박영숙의 화면 위에서, 가부장적 정상성에서 배제된 '미친년들'은 저항의 상징으로 변모한다. 작가는 여자의 '광기'를 억압적 구조에 대한 비판이자 스스로의 정체성과 서사를 되찾으려는 강력한 외침으로서 재정의한다.



<갈힌 몸 정처 없는 마음 #5>
2002
C-프린트
120 x 120 cm

[...]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더 버티지 못해 탈출을 시도한다.
아주 잠시, 아주 멀리, 아주 깊이 그녀만의 시공간을 설정해 버린다.
그 설정된 시공간이 '미친년의 시공간'이다.

[...] 도마 위 고등어를 내려치다가, 밝은 창 침대 옆에 앉아 있다가,
거울 속 자신을 쳐다보다가, 화분에 물을 주다가, 욕탕에서 물을
뒤집어쓰다가, 잠시 그녀들은 그 상황에 갇힌다.

편안하다.
한 찰나, 한 순간, 그 상황.
그 시공간에 충돌된 그 여성은 자신도 모르게 그 '시, 공간'에
동화한다.
미친 것이다.

- 작가노트, 「갈힌 몸 정처 없는 마음」 중에서 발췌



<꽃이 그녀를 흔들다 #5>

2005
C-프린트
120 x 120 cm

꽃들에는 전설이 있다. 그 모든 꽃의 전설들은 슬프다. 서양의 꽃 ‘물망초’ 꽃말도 ‘날 잊지 말아요’이니, 그것도 슬프다. 우리나라의 ‘며느리밥풀꽃’에 담긴 전설이 있다. 그 이야기들도 슬프다. 제삿밥 짓다 떨어진 쌀 두 톨이 아까워 입 안에 집어넣은 며느리, 그 현장을 본 시 어머니는 제사상을 위한 신성한 음식에 손댄 며느리의 행동을 지탄하며 집에서 쫓아낸다. 쫓겨난 며느리는 억울함을 안고 죽는다. 그 ‘영혼의 한’이 곧 ‘며느리밥풀꽃’이 되었다.

이런 꽃말에 얽힌 이야기들을 해체 시켜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여성을 왜 꽃에 비기는 것일까? 꽃을 아름답다, 연약하다 하듯이 여인도 아름답고 연약하다며 견주는 그 문화적 사유 틀이 나는 무조건 싫다. 거부하고 싶다. 이 모든 꽃에 대한 고정관념들을 나는 전복시키고 싶다. 꽃의 본질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대체해야 한다는 생각, 그런 생각들이 이 ‘꽃이 그녀를 흔들다’를 야기했다.

- 작가노트, 「꽃이 그녀를 흔들다」 중에서 발췌



<마녀>, 1988, 젤라틴 실버 프린트, 26.5 x 217.2 cm

박영숙이 1988년 발표한 포토콜라주 <마녀>(1988)는 김혜순의 시 「그곳 2—마녀 화형식」[별첨2] 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제작한 작품이다. 그는 시의 마지막 행인 ‘몸 전체에 불길을 매단 채’라는 표현에서 영감을 얻어, 여성 억압의 대표적 사례인 서양의 마녀 화형식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해당 시는 1979년 경 쓰인 뒤 1988년의 시집 『어느 별의 지옥』에 수록되었다. 계엄 시절 대학 졸업 후 출판사에 다니던 시인은 어느 날 교정을 맡은 번역자의 연락처를 추궁 당하며 경찰에 불려 가 뺨을 맞게 되었는데, 훗날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2014)에 등장하는 ‘은숙’의 실존인물이 바로 그다. 김혜순은 이후 일주일 간 결근하고 하숙집에 엎드려 뺨 하나에 하나씩 시를 썼다. 그 중 두 번째 시가 「그곳 2—마녀 화형식」이다.

<마녀>는 박영숙이 페미니스트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한 시기 제작된 대표작 중 하나이다. 마녀를 연상시키는 여인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인화 과정에서 버려진 사진들, 즉 정상적 규범에서 배제된 사진 이미지들을 병렬 배치함으로써 시각적 운율과 서정적 분위기를 이끌어냈다. 작가는 그러한 작업을 통하여 부당한 역사 속에서 희생된 여자들의 영혼을 사진의 화면 위에 불러내어 위로하고자 했다. <마녀>는 본 전시에 출품된 또 다른 포토콜라주 <장미>(1988)와 함께 1988년 그림마당 민에서

열린 《여성해방 시와 그림의 만남: 우리 봇물을 트자》에서 처음 선보였다. 두 작품은 훗날 박영숙의 페미니즘 사진에 유의미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장면 24>
1965
젤라틴 실버 프린트
40.6 x 50.8 cm



<장면 38>
1966
젤라틴 실버 프린트
50.8 x 40.6 cm



<장면 46>
1967
젤라틴 실버 프린트
50.8 x 40.6 cm

박영숙이 1963년부터 1967년까지 촬영한 흑백 사진들은 향후 작품세계를 구성하는 주제 및 소재의 초기 형태를 풍부하게 드러내는 사료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대표작들에 비하여 충분히 조명되지 않았다. 해당 시기 작품들은 전후 한국의 배경과 환경, 서울의 현대적인 거리 풍경을 생생하게 담아내는 한편, 당시 이십 대의 박영숙이 카메라를 통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선택하여 촬영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피사체를 담아냈는지 생생하게 드러낸다. <장면>(1963-67) 연작은 사진 속 여성의 초상 및 삶의 장면들로부터 작가의 페미니즘적 태도를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훗날 '미친년'과 '마녀'로 형상화된 여성의 원형을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품이다. 총 50점의 연작 중 23점이 이번 전시에 선보인다.



<자궁의 노래_이제 크신 어머니 자고 깨니>[스틸 컷]
1994 (2026)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07'30"

<자궁의 노래: 이제 크신 어머니 자고 깨니>(1994, 2026 디지털 판본 제작)는 1994년 전시 《여성, 그 다름과 힘》(김홍희 기획)에서 4인의 공동 프로젝트 일환으로 발표된 박영숙의 영상 작품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여성의 자궁을 주제로 하여 박영숙이 영상, 윤석남이 설치, 가수 한영애가 소리, 목사 김영이 글을 맡아 공감각적 시공간을 구현하였다. 영상 작품 <자궁의 노래: 이제 크신 어머니 자고 깨니>는 박영숙의 사진 슬라이드 위에 한영애의 구음을 음향 요소로 덧입힌 형태로 제작되었다. 아날로그 슬라이드 필름 영사 방식으로 만든 기존 영상을 디지털 판본으로 복원한 결과물이 이번 전시에서 처음으로 공개된다.

자궁은 생명이 그 본질이다. 하늘 어머니가 지구를 창조했듯, 여성은 자궁으로 오늘도 계속 한 생명을 창조한다. 지구의 창조, 자연의 창조, 인간의 창조, 인간들의 역사가 아직도 계속해 창조 활동을 하고 있다. 남성들의 역사, 문화는 자연을 극복하려는 의지의 역사였다. 문명화라는 말로 철학과 과학이라는 당위성을 논하며, 정치와 경제의 가치성이라는 이름으로 남성 중심의 역사가 오늘을 이루어 냈다. 이제 그 '역사'가 지구를 파괴했다는 다양한 양상들이 지구 여기저기에서 드러나고 있다. 지나친 연구, 지나친 경쟁으로.

자궁이 그들을 부르고 있다. 자궁으로 돌아와 좀 쉬어 보라고. 자궁이 너희를 품어 거듭 태어나게 하려 하니, 들어와 새로운 양분들을 섭취해 보라고……. 자궁에서 촉각, 청각, 후각, 미각, 시각으로 전해주는 경험, 그 자궁에서의 경험으로 아마 당신을 거듭나게 해 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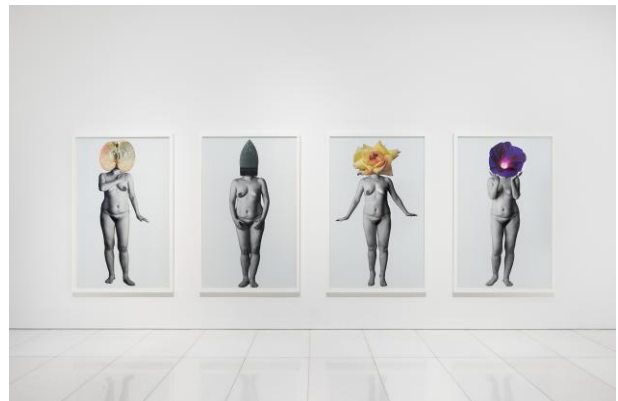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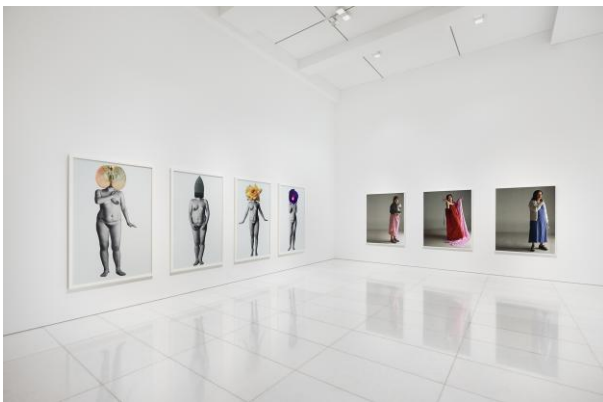
여기는 '크신 어머니의 자궁 속'입니다. 어서 오세요.

- 작가 노트, 「자궁의 노래: 이제 크신 어머니 자고 깨니」 중에서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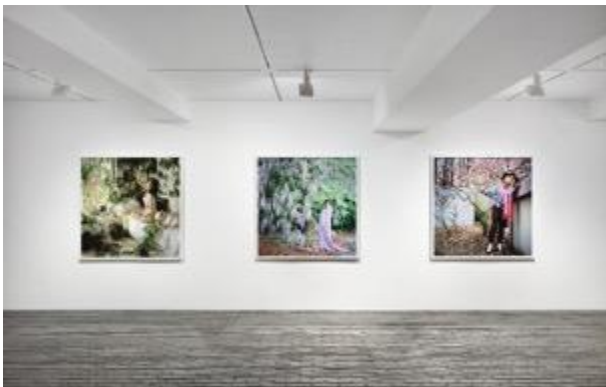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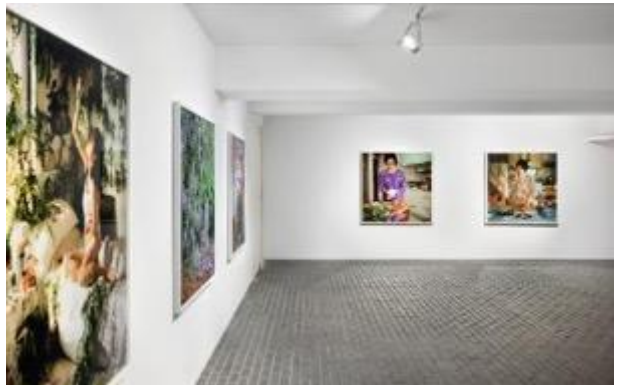
5. 전시전경

※ 이미지 사용 시 저작권 및 제공처 표기: ©박영숙 에스테이트. [유족 및 아라리오갤러리 제공]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1층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지하1층



▲ <꽃이 그녀를 흔들다 #14>(2005)의 촬영 현장 기록 영상을 전시 공간 한편에서 상영하고 있다.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3층



▲ 박영숙의 <장면>(1963-67) 연작 일부와 아카이브 자료가 이정배의 가구와 함께 배치되어 있다.



박영숙 개인전 《보라, 저 여자가 노래하고 춤춘다》(아라리오갤러리 서울, 2026) 전시전경.

6. 작가약력

박영숙 1941-2025, 한국

학력

1963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학사 졸업, 서울, 한국

1986 숙명여자대학교 산업대학원 사진디자인학과 석사 졸업, 서울, 한국

주요 개인전

2026 보라, 저 여자가 노래하고 춤춘다,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서울, 한국

2022 마녀의 귀환, 아라리오뮤지엄 탐동시네마, 제주, 한국

2021 제32회 이중섭 미술상 박영숙 수상기념전, 조선일보미술관, 서울, 한국

2020 그림자의 눈물,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서울, 한국

2017 두고 왔을 리가 없다, 한미사진미술관, 서울, 한국

2016 미친년. 발화하다, 아라리오갤러리 천안, 천안, 한국

2009 Cry Crack Crazy, 고은사진미술관, 부산, 한국

2006 미친년프로젝트, 숙명여자대학교 문신미술관, 서울, 한국

미친년프로젝트, 김재선갤러리, 부산, 한국

- 2005 미친년프로젝트, 소나무갤러리, 춘천, 한국
 미친년프로젝트, 한국미술관, 용인, 한국
 미친년프로젝트, 성곡미술관, 서울, 한국
- 2004 미친년프로젝트, Dawn Center, 오사카, 일본
- 2004 미친년프로젝트, The Third Gallery Aya, 오사카, 일본
- 1982 노스탈자, 파인힐 사진전문갤러리, 서울, 한국
- 1981 포트레이트, 공간미술관, 서울, 한국
- 1975 UN제정 `75 세계여성의 해 기념사진전 평등, 발전, 평화, 중앙공보관, 서울, 한국
- 1966 박영숙 사진 개인전, 중앙공보관, 서울, 한국

주요 단체전

- 2025 전후의 시선: 동강사진박물관 20년 특별전, 동강사진박물관, 영월, 한국
 미드나잇 미드나잇, 뮤지엄헤드, 서울, 한국
 광채: 시작의 순간들, 서울시립 사진미술관 개관전, 서울시립사진미술관, 서울, 한국
- 2024 접속하는 몸: 아시아 여성 미술가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울, 한국
 SeMA 옴니버스: 나는 우리를 사랑하고 싶다,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한국
- 2023 한국여성재단재개관 기념전. 내가 그린 여자들, 한국여성재단사육, 서울, 한국
 감각의 방향, 한국여성사진가협회전, 김영섭 사진화랑, 서울, 한국
 발푸르기스의 밤: 한국의 마녀들, 세종미술관, 서울, 한국
 어떤 Norm(all), 수원시립미술관, 수원, 한국
- 2022 애도: 상실의 끝에서, 전남도립미술관, 광양, 한국
- 2021 한국 현대 여성 문화 예술 운동 기획전시 The Matriarchy: Women, Utopia and Narrative,
 대추무파인아트, 강릉, 한국
 한국의 날 기념 미술 전시: 5518.8880, 코벤티리 대학, 코벤티리, 영국
- 2021 서울사진축제, 한국여성사진사 I: 1980년대 여성사진운동,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한국
- 2020 피어서, 서울시립미술관 SeMA 창고, 서울, 한국
 우리가 지나쳐 온 그녀들의 공간,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서울, 한국
 댄싱 퀸, 아라리오갤러리 천안, 천안, 한국
- 2019 재분류: 밤은 밤으로 이어진다, 수원시립미술관, 수원, 한국
 나나랜드: 나답게 산다, 사비나미술관, 서울, 한국
- 2018 여성미술 특별기획전, 금하는 것을 금하라, 수원시립미술관, 수원, 한국
 부드러운 권력, 청주시립미술관, 청주, 한국
 프레임 이후의 프레임: 한국현대사진운동 1988-1999, 대구미술관, 대구, 한국
- 2017 소장품 특별 전시: 균열,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한국
 즐거운 일기, 서학동사진관, 전주, 한국

- 2016 아주 공적인 아주 사적인: 1989년 이후, 한국현대미술과 사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한국
- 2015 한국여성미술제, 전북도립미술관, 전주, 한국
- 2014 Solidarity Between Generation, ARC Gallery, 시카고, 미국
어머니의 눈으로 Through The Eyes of The Mother, Women Caucus for Art, 한국/미국
페미니스트, KCCOC, 시카고, 미국
- 2012 경기도미술관 소장품 기획전: 게임x예술-바츨혁명전, 안산, 한국
이대 창립26주년 기념전 "모성(Motherhood)", 이화여대 박물관, 서울, 한국
2012 사진기증작품 특별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한국
- 2011 플랫폼 아티스트- 2011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한국
인천상륙작전,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한국
- 2010 여성사 전시관 특별기획전: 워킹 맘마미아-그녀들에게는 모든 곳이 현장이다, 한국 여성사
전시관, 서울, 한국
- 2009 New Digital Age, 노보시비르스크 국립미술관, 노보시비르스크, 러시아
- 2008 언니가 돌아왔다, 경기도미술관, 안산, 한국
Daily Life in Korea: 한.태 수교 50주년 기념전, 퀸즈갤러리, 방콕, 태국
- 2006 여성. 일. 미술 - 한국미술에 나타난 여성의 노동, 이화여대박물관, 서울, 한국
- 2005 Frankfurt Book Fair 2005: The Battle of Visions, Kunsthalle Darmstadt, 프랑크푸르트, 독일
- 2004 헤이리 페스티벌: 장소/공간, 헤이리, 한국
Borderline Cases - Women On The Borderlines, A,R,T Gallery, 도쿄, 일본
바그다드551km, 제비울미술관, 과천, 한국
- 2003 국가인권위원회기획사진전, 눈밖에 나다, 덕원 갤러리, 서울, 한국
여섯 사진작가의 여섯 개의 코드 읽기, 성곡미술관, 서울, 한국
- 2002 육체풍경(Body scape), 로댕갤러리, 서울, 한국
제2회 여성미술제, 동아시아 여성과 역사, 여성플라자, 서울, 한국
광주비엔날레 2002: 멈춤. 止. PAUSE - 제3프로젝트, 집행유예, 광주, 한국
- 2001 광주시립미술관 주최 오월정신전, 행방불명,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한국
여성사진가협회 주최, 여성과 시간, 여성과 공간 대안공간 풀, 서울, 한국
- 1999 여성문화예술 기획. 주최 99 여성미술대전, 팔쥐들의 행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한국
여성사진가협회주최 여성특위후원, 여자들의 밥그릇, 나무화랑, 서울, 한국
'99 서울사진대전, 사진은 우리를 바라본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 1998 '98 서울사진대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98 사진 영상의 해 기념사진전, 사진의 시각 확장,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한국
표현할 수 없는 것의 표현, 포스코갤러리, 서울, 한국
- 1995 싹, 서울선재미술관(현 아트선재센터), 서울, 한국
해방 50년 역사미술전 -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한국

- 1996 사진은 사진이다, 삼성포토갤러리, 서울, 한국
- 1994 여성 그 다름과 힘, 한국미술관, 서울 & 용인 갤러리 한국, 한국
한국현대사진의 흐름 1945-1994,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한국
여성과 현실, 갤러리 21세기, 서울, 한국
- 1993 여성과 현실, 그림마당 민, 서울, 한국
- 1992 여성과 현실, 그림마당 민, 서울, 한국
- 1988 여성해방 시와 그림의 만남: 우리 봇물을 트자, 그림마당 민, 서울, 한국
- 1980 제3회 숙미회 사진전, 출판문화회관, 서울, 한국

수상

- 2025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미술(시각예술) 부문, 문화체육관광부, 한국
- 2020 이중섭 미술상, 한국

주요 소장처

-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 영국
- 국립현대미술관, 한국
- 서울시립미술관, 한국
- 서울시립사진미술관, 한국
- 경기도미술관, 한국
- 광주시립미술관, 한국
- 청주시립미술관, 한국
- 성곡미술관, 한국
- 한미사진미술관, 한국
-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 숙명여자대학교, 한국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
- 아라리오컬렉션, 한국

[별첨1] 김혜순의 시 「꽃이 그녀를 흔들다」

꽃이 그녀를 흔들다

김혜순

땅이 미치지 않고 어찌,
꽃을 피울 수 있겠는가

여자의 몸에서 올라오는 광기는
여자의 몸에서 올라오는 꽃과 같다
광기가 꽃을 피게 한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산
땅 속에 억눌린 채 숨어 있던 영혼의 열림
바로 개화다

여자가 미치지 않고 어찌,
노래를 하고, 춤을 추겠는가
보라, 저 여자가 노래하고 춤춘다
땅이 미쳐 저 꽃이 핀다

[별첨2] 김혜순의 시 「그곳 2—마녀 화형식」

그곳 2—마녀 화형식

김혜순

채찍으로 내리치지 않아도 나는
발가벗긴다
발가벗긴 내 위로
물이 내린다.
안개가 쏟아진다.
이슬이 맺힌다.

다음—아버지들이 나온다
나와서 내 몸밖에 커튼을 친다
비단처럼 보드라운! 그러나 강철 커튼!
솜처럼 폭신한! 그러나 이불보다 더 두꺼운!
다음—말씀의 채찍으로 내리친다
다음—잉크를 먹인다
몸통 가득 잉크가 차올라 온다.

드디어 발가벗기고 매맞고
무거운 이야기를 옷인 양 입고
몸 위로 가득 글씨를 토하고야 만다
수세기 전에도 했던
비밀의 그 예언을.
몸 전체에 불길을 매단 채.

[별첨3] 김영 목사의 축시 「나의 친구 박영숙 작가」

김영은 박영숙의 오랜 벗이자 1994년의 전시 《여성, 그 다름과 힘》에서 박영숙, 윤석남, 한영애가 함께 한 공동 프로젝트에서 창세기의 '하나님 아버지'를 '어머니'로 바꾸어 쓴 시를 발표한 여성 목사이다. 다음은 김영이 이번 전시에 부쳐 쓴 축시 전문이다.

나의 친구 박영숙 작가

당신의 예술은 빛을 향한
삶의 몸부림이었지
평생 빛과 협업하기 40여 년

이 땅의 여성들이
어둠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했던
긴—긴—세월
이제는 뒤로하고
그대 덕분에 많은 여성들이
더 이상 미치지 않고
노래하며 춤을 춘다네!

* * * * *

하느님이 어디 계시냐며 함께
죽마를 달리던 어린 시절
나의 모든 허물 덮어주는
이불처럼 포근하고
따뜻했던 나의 친구 영숙!

그 흔해 빠진 고정관념조차
가질 줄 모르던 순수한 사람
시대의 흐름 속에
카메라를 들이대고
찍고 찍고 또 찍어 끝내
자유와 사랑과 해방을 말했지

이제 빛의 나라 크신 어머니 곁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2026. 홍마해
죽마지우 김영 목사

ARARIO GALLERY SEOUL

PARK Youngsook

Look, That Woman Sings and Dances



Installation view of PARK Youngsook: *Look, That Woman Sings and Dances* at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2026.

Artist : PARK Youngsook (1941–2025, Korea)
Title : *Look, That Woman Sings and Dances*
Dates : 25 Feb – 18 Apr 2026
Venue : ARARIO GALLERY SEOUL (85 Yulgok-ro, Jongno-gu, Seoul, Korea) 1F, B1F, 3F
Artworks : 42 Artworks in total (41 photographs and 1 video work), accompanied by archival materials

[Inquiry]

ARARIO GALLERY SEOUL | E. info@arariogallery.com
 Miran PARK, Deputy Director | E. miran.park@arariogallery.com

Table of Content	1. Exhibition Overview	-----	20
	2. Artist Introduction	-----	20–21
	3. Curatorial Essay	-----	21–25
	4. Artworks	-----	26–28
	5. Installation view	-----	28–30
	6. Artist CV	-----	30–32
	[Appendix 1] “A Flower Shakes Her” by KIM Hyesoon	-----	33
	[Appendix 2] “The Place 2—Burning of a Witch” by KIM Hyesoon	-----	33

1. Exhibition Overview

ARARIO GALLERY SEOUL is pleased to present *Look, That Woman Sings and Dances*, a solo exhibition of **PARK Youngsook** (1941–2025), from 25 February to 18 April, 2026. This is the first exhibition to be held following the passing of the artist, who left an indelible mark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contemporary photography and feminist art. The exhibition offers a retrospective reflection on the subjectivity of the “woman” captured through PARK’s lens. Throughout her career, PARK challenged androcentric customs and irrational power structures by placing women at the forefront of her photography. Her work elevates women—who have long been objectified in the history of photography—into the authors of their own narratives and the subjects of their own voices. Liberated from socially prescribed identities, her women are summoned into the gallery space to re-examine and redefine themselves. The exhibition title is drawn from a line in the poem “A Flower Shakes Her” (2005), gifted to the artist by the poet KIM Hyesoon. The poem likens the earthly energy of a blooming flower to the “madness” emanating from a woman’s body. “That woman” in the verse signifies not only PARK herself but all objectified women throughout history, encompassing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n the first floor and basement of ARARIO GALLERY SEOUL, major works produced between 1998 and 2005 are presented, including the series *Body and Sexuality* (1998), *Mad Women* (1999), *Sexuality is Lost for Women* (2001), *Imprisoned Body*, *Wandering Spirit* (2002), *Witch Within Me* (2005), and *A Flower Shakes Her* (2005). The third floor traces the early trajectory where the artist's thematic consciousness first emerged, spanning from the 1960s to the mid-1990s. The central axis of this floor consists of black-and-white photograph series from the 1960s–80s—such as the *Scene* series (1963–67), *Witch* (1988), and *Rose* (1988)—where one can witness the archetype of the “Mad Women” and “Witch” within her oeuvre. Additionally, the video work *Song of the Uterus: As the Great Mother Sleeps and Rises* (1994, digitally reproduced in 2026), originally created as an analog slide film projection, has been digitally restored and is presented on the same floor.

2. Artist Introduction



PARK Youngsook at the office of Trunk Gallery (2007–2018)

© Estate of PARK Youngsook. Courtesy of the [Estate and Arario Gallery](#).

PARK Youngsook placed the female body at the heart of her practice to challenge social oppression, absurdities, and the entrenched sexual power structures surrounding women's lives. After graduating from the Department of History a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in 1963, she earned her Master's degree in Photography and Design from the same institution in 1986. Her artistic journey began in 1961 as a member of the "Contemporary Photography Research Association," followed by her leadership as the founding president of "Sookmi-hoe," the university's first photography club, in 1962.

Following her debut solo exhibition in 1966, PARK rose to prominence through her 1975 solo exhibition 75 UN Women's Year Photo Exhibition –

Equality, Development, Peace, held at the invitation of the Korean National Council of Women to mark the UN International Women’s Year. This exhibition was significant for its raw portrayal of the lives of female laborers. By the early 1980s, PARK had firmly established her identity as a feminist, becoming a leading voice in the movement through her involvement with various feminist collectives. Her work has since been featured in major exhibitions at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MMCA) and the Seoul Museum of Art (SeMA), as well as the 2002 Gwangju Biennale.

In addition to her creative work, she founded and managed Trunk Gallery from 2007 to 2018, providing a vital space for Korean photography. PARK received Lee Joong Sub Art Prize in 2020, and Korean Culture and Arts Awards in 2025. Today, her works are preserved in prestigious international and domestic collections, including the Victoria and Albert Museum (UK), the MMCA (Korea), SeMA (Korea), Commission of Korea (Korea), Photography Seoul Museum of Art (Korea),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Korea), Gwangju Museum of Art (Korea), Cheongju Museum of Art (Korea), Hanmi Photo Museum (Korea), and the Arario Collection (Korea), standing as a testament to her enduring legacy as an artist and activist.

3. Curatorial Essay

When using artwork images, please include the following copyright credit:
© Estate of PARK Youngsook. Courtesy of the Estate and Arario Gallery.

Look, That Woman Sings and Dances⁶

PARK Miran | Deputy Director at ARARIO GALLERY

PARK Youngsook (1941–2025) was, from the very beginning, a woman with a camera. This fact encouraged women standing before her lens to gaze back boldly, empowering them to take control of their own images. Women, once objectified in the history of photography, are reborn as the architects of their own narratives and the subjects of their own voices. The power of the gaze is subverted, and the body is transformed into an agora of contemporary discourse. In the face of an androcentric society disguised under the veneer of reason and morality, PARK’s women choose instead to become the “Mad Women.” Without hesitation, they loosen their Hanbok and awaken the “Witch” within. Now, look at that woman—a soul blooming in madness.

The exhibition *Look, That Woman Sings and Dances* at ARARIO GALLERY SEOUL is the first solo exhibition of PARK following her passing, a figure who left an indelible mark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contemporary photography and feminist art. This exhibition was organized to retrace the trajectory of the artist’s thematic consciousness and to resurrect that spirit within today’s space and time. Women who have broken free from social oppression to reinvent themselves

⁶ The title of this exhibition is borrowed from a line in the poem “A Flower Shakes Her,” gifted to the artist by the poet KIM Hyesoon. “That woman” in the poem refers to all women throughout history—including PARK herself—encompassing the past, present, and future.

are summoned to the exhibition space. The works span a broad period of over forty years, from 1963 to 2005. The exhibition layout is envisioned as a journey that visits the heyday of the “Mad Woman” and the “Witch,” while also tracing their archetypes back through earlier black-and-white landscapes.



From the left: *Mad Women #1*, *Mad Women #5*, *Mad Women #7* (1999).

A woman left with nothing to hold, clutching a satin pillow while staring blankly into space; a woman laughing exultantly as she unties her Hanbok strings to release her constricted chest; a woman glaring straight ahead, meticulously made up amidst the chaos of housework and childcare. To such women, the world readily hurls the slur “Mad Women.” PARK’s representative body of work, *Mad Women Project* (1999–2019), began for all women throughout history who were forced into patience and silence by male-oriented social customs. Evolving through various series over twenty years since the release of *Mad Women* (1999) at the turn of the century, this project serves as both a performance and a record, carried out by the women of today on behalf of the women of the past—those who were unaware that the pain “lay deep in their unconsciousness; it was enough for one to lose their mind completely, yet they endured these unbearable situations endlessly.” Thus, these women had no choice but to become “mad; they became ghosts.”⁷



From the left: *Body and Sexuality #2*, *Body and Sexuality #1*, *Body and Sexuality #3*, *Body and Sexuality #7* (1998).
Installation view of *PARK Youngsook: Look, That Woman Sings and Dances* at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2026.

⁷ PARK Youngsook, “Statement for Mad Women Project” (1999), eds. PARK Youngsook and KIM Youngok, trans. CHOI Inyoung, in *Mad Women Project* (Seoul: Sangkyung Communication, 2009), p. 64.

Meanwhile, the photomontage series *Body and Sexuality* (1998), which foreshadows *Mad Women Project*, brings the naked bodies of middle-aged women to the fore. In these works, the women's faces are replaced by objects, while their bodies maintain graceful poses, as if captured in a still moment of a dance. The objects substituted for heads—the iron, a symbol of domestic labor and progressive energy; the apple, an allegory of moist vitality or desire; and blossoms, embodying the conception of life and fleeting brilliance—all function as metaphors for the ambivalent nature of women. While the vibrantly colored objects suggest a coded femininity, the black-and-white, faceless bodies represent realistic portraits of women existing behind them. Revealing the scars of childbirth and sagging flesh, these bodies appeal for human solidarity and existential recognition rather than sexual desire.



Witch Within Me #5
2005
C-print
170 x 127 cm

PARK expanded the horizons of the *Mad Women Project* by engaging with feminists from various fields and minorities of diverse sexual orientations. The series *Sexuality is Lost for Women* (2001), which addresses concepts of sexuality that were distorted or concealed even from women themselves within a conservative society, and *Imprisoned Body, Wandering Spirit* (2002), which captures moments when women performing repetitive domestic labor drift into the "Space and Time of Mad Women," are the results of weaving the experiences of women around her into the narrative. Meanwhile, the series *Witch Within Me* (2005) depicts the advent of a contemporary witch through portraits of women possessing an independent gaze, wisdom, and creativity. These works present a frame-within-a-frame composition, where an oval center contrasts with a background decorated with botanical iconography, creating a dramatic atmosphere.⁸



A Flower Shakes Her #14
2005
C-print
120 x 120 cm

The series *A Flower Shakes Her* (2005), capturing the female body in the midst of a landscape in full bloom, resonates with the poem of the same title gifted to PARK by the poet KIM Hyesoon. The poem likens the energy of the earth that brings flowers into bloom to the madness blossoming from a woman's body. As if in response to these lines, PARK's photography attempts to subvert the stereotypes of "fragility" and "beauty" commonly imposed on both flowers and women. This is achieved by highlighting the visual intensity created by clusters of flowers and focusing intently on the woman's gestures and gaze. Within the frame, the flowers and the woman are no longer objects of contemplation; instead, they become subjects of their own speech, liberated by erupting the madness that has grown within.

PARK's photographs from the 1960s to the 1980s provide clues to her female archetypes that would later be established as the "Mad Woman" and the "Witch." In the lower-left corner of the photo collage *Witch* (1988), which consists of s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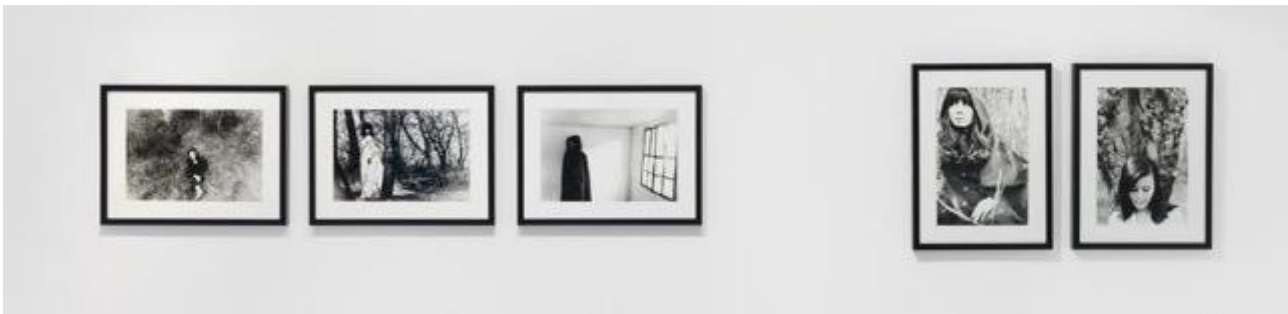
⁸ The botanical iconography in the background was designed in collaboration with YUN Suknam.

black-and-white photographs joined side by side, there is a handwritten note: “Became a feminist after being shocked by the medieval ‘witch hunt’.” As evidenced by the quote, PARK’s self-identification as a feminist began at the moment she confronted the history of witch hunts from a feminist perspective. It was KIM’s poem “That Place 2—Burning of a Witch” that provided the impetus for this realization. The hooded woman in *Witch* can also be found in her earlier series, *Scene* (1963–67). This series honestly captures various facets of the world, seen through the sensuous and unique perspective of PARK in her twenties.



Witch (1988).

Installation view of PARK Youngsook: *Look, That Woman Sings and Dances* at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2026.



From the left: *Scene #19* (1964), *Scene #24* (1965), *Scene #40* (1966), *Scene #38* (1966), *Scene #2* (1963).

Installation view of PARK Youngsook: *Look, That Woman Sings and Dances* at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2026.

Rose (1988) is a photo collage composed of five black-and-white photographs of a rose and a full-term pregnant body arranged vertically—a reinterpretation of KANG Unkyo’s poem, “A Flower Whose Name I Do Not Know.” By employing a reversal printing technique to process the same negative repeatedly with varying luminosities, the sequential placement on a single surface suggests a sense of temporal flow. A rose bearing thorns upon itself parallels the woman’s womb; it stands as a testament to strength unleashed through blooming and an embodiment of life force awaiting the next generation of seeds. The pregnant body shown in *Rose* reappears later in the video work *Song of the Uterus: As the Great Mother Sleeps and Rises* (1994).⁹ Accompanied by the wordless vocals of HAN Young Ae, the video sequentially displays vast natural landscapes, the pregnant female body, and the birth of a child. After a tense sequence capturing the frantic pace of daily city life, the video concludes with the gentle ridges of mountains and elderly mothers offering prayers to

⁹ This video work was produced as part of a project under the same title in collaboration with fellow artist YUN Suknam, singer HAN Young Ae, and Pastor KIM Young. It was first presented in the exhibition *Woman, the Difference and the Power* (Hankook Art Museum, 1994), curated by KIM Hong Hee. The digital restoration of the original video, which was initially created using analog slide film projection, is being unveiled for the first time in this exhibition.

nature. Through a circular narrative that begins and ends with nature, the work embodies a visual ritual that binds the event of birth through the womb to the cyclical principles of Mother Earth.

PARK felt deep compassion for the women whom our society failed to respect. She was incensed by the injustice of customs that imposed prescribed roles and responsibilities solely because one was born with a specific body.¹⁰ She believed that a feminist's role is to disclose and bring to light the deeply buried narratives erased under the disregard of the age.¹¹ Accordingly, using the language of photography as her tool, she preserved these stories upon a timeline that traverses the past, present, and future. This was part of a declaration: if a woman's agency is to be dismissed as subversive madness, she would willingly become a "Mad Woman" or a "Witch" herself. Look, her women sing and dance. The madness of those women blossoms into the brilliant flowers of today.



Left: *Rose* (1988), Right: *Song of the Uterus: As the Great Mother Sleeps and Rises* (1994, digitally reproduced in 2026).
On the far right wall of the photograph is a reproduction of a note outlining the script of HAN Young Ae's wordless vocals.

¹⁰ PARK's feminism, which focuses on those excluded from patriarchal normalcy, embraces not only biological women but also sexual minorities at large.

¹¹ PARK, *op. cit.*, p. 66.

4. Artworks

When using artwork images, please include the following copyright credit:
 © Estate of PARK Youngsook. Courtesy of the Estate and Arario Gallery.

Featured Images



Mad Women #5
 1999
 Archival pigment print
 150 x 120 cm

Mad Women (1999) is a monumental series that marked the beginning of the *Mad Women Project* (1999–2019). The series, consisting of seven photographs, records a healing and ritualistic performance carried out on June 18, 1999, by seven female artists who gathered at PARK's studio. The performance was initiated after the artist discussed the state of "madness" with a female psychiatrist. The seven women captured in these photographs expressed the madness residing within them, experiencing a profound sense of liberation.

The term "Mad Women" (Michin-nyeon in Korean) simultaneously encompasses the contempt and fear directed at women who defy patriarchal expectations. In PARK's photography, these "Mad Women"—excluded from patriarchal normalcy—are transformed into symbols of resistance. The artist redefines a woman's "madness" as both a critique of oppressive structures and a powerful outcry to reclaim one's own identity and narrative.



Imprisoned Body, Wandering Spirit #5
 2002
 C-print
 120 x 120 cm

[...] But One day....

She could not endure anymore and attempted an escape.

Just for an instant, faraway, in the abyss...

And she chooses space and time that belongs only to her.

That chosen space and time is the "Space and Time of Mad Women."

[...] As she strikes down at the fish on the cutting board, as she sits on the bed next to window with dripping sunlight, as she gazes at herself in the mirror, as she waters the plants, as she drenched herself with water in the shower, for a moment the women are locked in that situation.

IT IS COMFORTING.

An instant a moment that situation. Spurred by that space and time, the woman becomes one with That Space. That Time. Unknowingly.

– Excerpt from the Artist's Note, "Imprisoned Body, Wandering Spirit."



A Flower Shakes Her #5
 2005
 C- print
 120 x 120 cm

Every flower has its legend. But the story flowers have is sad. A western flower, 'myosotis' is a 'forget-me-not'. The name of a 'forget-me-not' derived from the story; Loved one died and a woman missing him kept the flower for her entire life. In Korea, there is a legend of a 'forget-me-not', too. A brother and a sister went out to find medicinal herbs for her sick mother. However, the sister had an accident to death on a cliff and a flower on the spot didn't fall of after summer. It made the flower to call a 'forget-me-not'. Moreover, there is a story about a kind of 'Rose Cowwheat'; One soul with deep sorrow was reborn to a flower. A woman ate two pieces of fallen rice on the ground for a sacrificial day and then, her mother-in-law saw it and severely smashed her for 'sacrificial rice.' She died there and her soul went up to heaven. She became a kind of 'Rose Cowwheat'.

These sad legends made me to think what kind of suppressions the women had. Why do all flower language have to be sad? Generally flowers are compared to women. Weak. Said flowers made someone else happy... I am uncomfortable the

culture dealing flowers and women to a certain comparison structure. I wanted to turn over the concept of flowers. I thought I have to transform the concept of flowers newly. These thoughts are the work, *A Flower Shakes Her*.

– Excerpt from the Artist’s Note, “A Flower Shakes Her”



Witch, 1988, Gelatin silver print, 26.5 x 217.2 cm

PARK’s photo collage *Witch* (1988) was inspired by KIM Hyesoon’s poem, “That Place 2—Burning of a Witch.” Drawing inspiration from the poem’s final line, “with flames hung all over the body,” PARK began exploring the witch hunts of the West as a quintessential symbol of female oppression. Although written around 1979, the poem was later included in the 1988 collection *The Hell of That Star*. During the martial law era, the poet, then a young publisher’s employee, was summoned by the police and struck across the face while being interrogated for a translator’s contact information. This real-life incident later served as the basis for the character ‘Eun-sook’ in Han Kang’s novel *Human Acts* (2014). Following the assault, KIM stayed home for a week, writing a poem for each blow she received; the second of these was “That Place 2—Burning of a Witch.”

Witch is a seminal work created during the period when PARK was establishing her identity as a feminist artist. By juxtaposing a photograph of a woman evoking the image of a witch with discarded prints from the developing process—images excluded from “normal” standards—the work achieves a visual rhythm and lyrical atmosphere. Through this process, the artist sought to summon and console the souls of women sacrificed throughout unjust history. *Witch*, along with another photo collage in this exhibition, *Rose* (1988), was first unveiled at the 1988 exhibition *Wuri Botmureul Teuja* at Geurimmadang Min. These two works laid a significant foundation for PARK’s subsequent feminist photography.



Scene #24
1965
Gelatin silver print
40.6 x 50.8 cm



Scene #38
1966
Gelatin silver print
50.8 x 40.6 cm



Scene #46
1967
Gelatin silver print
50.8 x 40.6 cm

PARK’s black and white photographs from the 1960s, were largely forgotten until their recent rediscovery. These black and white photographs vividly capture the post-war Korean environment, and the modern streets of Seoul, as well as female portraits and scenes of life taken from a feminist perspective. What captured her eyes and what she took and how she present the subjects are the early works that offer glimpses of the themes that would later define her focused female portraits, tracing the development of her artistic vi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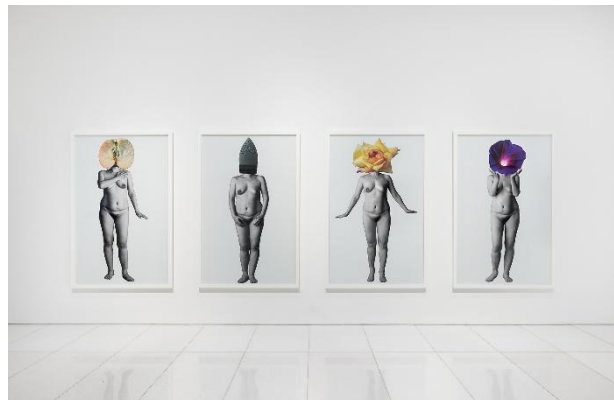
Song of the Uterus: As the Great Mother Sleeps and Rises
 1994 (2026)
 Single channel video, color, sound
 07'30"
 [Still cut]

Song of the Uterus: As the Great Mother Sleeps and Rises (1994; digitally reproduced in 2026) is a video work by PARK, first presented as part of a collaborative project with fellow artist YUN Suknam, singer HAN Young Ae, and Pastor KIM Young. It was first presented in the exhibition *Woman, the Difference and the Power* (Hankook Art Museum, 1994), curated by KIM Hong Hee. The work features a series of PARK's photographs layered with the wordless vocals of HAN as an auditory element. The digital restoration of the original video, which was initially created using analog slide film projection, is being unveiled for the first time in this exhibition at ARARIO GALLERY SE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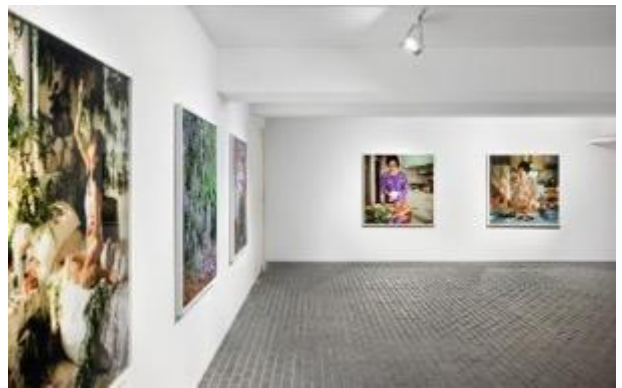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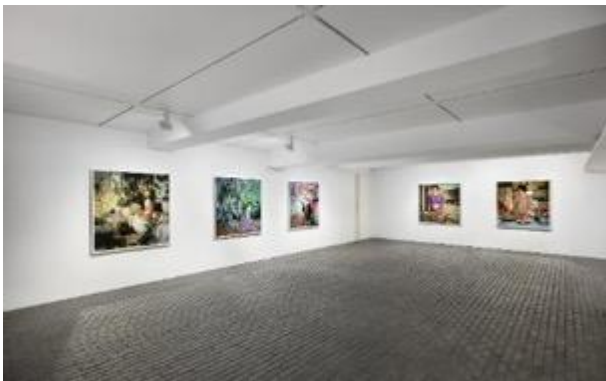
Accompanied by the wordless vocals of HAN, the video sequentially displays vast natural landscapes, the pregnant female body, and the birth of a child. After a tense sequence capturing the frantic pace of daily city life, the video concludes with the gentle ridges of mountains and elderly mothers offering prayers to nature. Through a circular narrative that begins and ends with nature, the work embodies a visual ritual that binds the event of birth through the womb to the cyclical principles of Mother Earth.

5. Installation view

ARARIO GALLERY SEOUL (1F)



ARARIO GALLERY SEOUL (B1F)



▲ An archival video of the photo shoot for *A Flower Shakes Her* #14 (2005) is being screened in the exhibition space.

ARARIO GALLERY SEOUL (3F)



▲ A selection from the *Scene* series (1963–67) and archival materials are displayed on furniture by LEE Jeongbae.



Installation view of *PARK Youngsook: Look, That Woman Sings and Dances* at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2026.

6. Artist CV

PARK Youngsook 1941-2025, Korea

EDUCATION

- 1963 BA of Histor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1986 MFA of Photography and Desig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SELECTED SOLO EXHIBITIONS

- 2026 *Look, That Woman Sings and Dances*,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 2022 *The Return of the Witch*, ARARIO MUSEUM TAPDONG CINEMA, Jeju, Korea
- 2021 *32nd Lee Joong Sub Art Prize, Park Youngsook*, Chosun Art Gallery, Seoul, Korea
- 2020 *Tears of a Shadow*,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 2017 *Could not have left behind*, The Museum of Photography, Seoul, Korea
- 2016 *Mad Women –The Utterance*, ARARIO GALLERY CHEONAN, Cheonan, Korea
- 2009 *Cry Crack Crazy*, Goeun Museum of Photography, Busan, Korea
- 2006 *Mad Women Projec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Moonshin Museum, Seoul, Korea
- Mad Women Project*, Kim Jaesun Gallery, Busan, Korea
- 2005 *Mad Women Project*, Sonamu Gallery, Chuncheon, Korea
- Mad Women Project*, Gallery Hankuk, Yongin, Korea
- Mad Women Project*, Sungkok Art Museum, Seoul, Korea
- 2004 *Mad Women Project*, Dawn Center, Osaka, Japan
- Mad Women Project*, The Third Gallery Aya, Osaka, Japan
- 1982 *Nostalgia*, Pine-hill Photo Gallery, Seoul, Korea
- 1981 *Portrait*, Gonggan Gallery, Seoul, Korea
- 1975 *75 UN Women's Year Photo Exhibition – Equality, Development, Peace*, National Public Information Office,

Seoul, Korea

1966 *Park Youngsook Solo Exhibition*, National Public Information Office, Seoul,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25 *Therebefore and Thereafter: 20 Years of vision at DongGang Museum of Photography*, DongGang Museum of Photography, Yeongwol-gun, Korea
Midnight Midnight, Museumhead, Seoul, Korea
Radiance: Beginnings of Korean Art Photography, Inaugural Exhibition of Photography Seoul Museum of Art, Photography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 2024 *Connecting Bodies: Asian Women Artists*,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Korea
SeMA Omnibus: I Want to Love Us, Seoul Museum of Art (Buk-Seoul), Seoul, Korea
- 2023 *Female Portraits*, The Korea Foundation for Women Re-opening Exhibition, The Korea Foundation for Women Building, Women Fund, Seoul, Korea
A Direction of Sense, The Korean Women Photographers Association Exhibition, Kim Youngsub Gallery, Seoul, Korea
Walpurgis Night: The Witches from Korea, Sejong Museum of Art, Seoul, Korea
So-Called Normal Family, Suwon Museum of Art, Suwon, Korea
- 2022 *Mourning: In the Wake of Loss*, Jeonnam Museum of Art, Gwangyang, Korea
- 2021 *The Matriarchy: Women, Utopia and Narrative*, Daechumoo Fine Art, Kangneng, Korea
5518(mile). 8880(km), Coventry Korea Day Festival Art Exhibition, Coventry University, UK
2021 Seoul Photo Festival: Women Photo Festival, Seoul Museum of Art (Buk-Seoul), Seoul, Korea
- 2020 *Piercer*,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A Larger Mind,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Dancing Queen, ARARIO GALLERY CHEONAN, Cheonan, Korea
- 2019 *Re-classification: The night leads to the night*, Suwon Museum of Art, Suwon, Korea
Na Na Land: It's My World, Savi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Korea
- 2018 *Not allowed to ban*, Suwon Museum of Art, Suwon, Korea
Soft Power, Cheongju Museum of Art, Cheongju, Korea
Frames after Frames: Modern Photography Movement of Korea from 1988 to 1999, Daegu Art Museum, Daegu, Korea
- 2017 *Crack*,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Korea
Joyful Journal, Seohak-dong Sajingwan, Jeonju, Korea
- 2016 *Public to Private: Photography in Korean Art since 1989*,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Korea
- 2015 *Feminists Artist Festival*, Jeonbuk Museum of Art, JeonJu, Korea
- 2014 *Solidarity Between Generation*, ARC Gallery, Chicago, US
Through The Eyes of the Mother, Women Caucus for Art, Korean/American Feminist, Chicago KCCOC, US
- 2012 *Game X Art: War of Bartz Revolution*,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Ansan, Korea
Motherhood, Ewha Women's University Museum, Seoul, Korea
Donated Photographs 2012,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Korea
- 2011 *PLATFORM ARTISTS -2011 Incheon Art Platform Artist -in-Residence Program*,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Korea
- 2010 *Working Mamma Mia-For Women All Places Are Work Places*, Women's History Exhibition Hall, Seoul, Korea
- 2009 *New Digital Age*, Novosibirsk State Art Museum, Novosibirsk, Russia
- 2008 *Sister(Eonni) is Back*,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Ansan, Korea
Daily Life in Korea – In Commemoration of the 5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Thailand, The Queen's Gallery, Bangkok, Thailand
- 2006 *Woman. Work. Art-Portrayal of Woman at Work in Korean Art*, Ewha Woman's University Museum, Seoul, Korea

- 2005 *Frankfurt Book Fair 2005: The Battle of Visions*, Kunsthalle Darmstadt, Frankfurt, Germany
- 2004 *Heyri Festival – Place / Space*, Heyri, Paju, Korea
Borderline Cases - Women on The Borderlines, ART Gallery, Tokyo, Japan
Baghdad 551km, Jebiwool Museum, Gwacheon, Korea
- 2003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UN-BAKKE-NADA* (which connotes a meaning of "being socially excluded"), Dukwon Gallery, Seoul, Korea
Six photographers Six Codes. Work, Money, Power, the City, Sex, New Technology, Sungkok Museum, Seoul, Korea
- 2002 *Bodyscape*, Rodin Gallery, Seoul, Korea
The 2nd Women's Art Festival. East Asian Women and Her Stories, Women's Community Center, Seoul, Korea
Gwangju Biennale: Pause, Gwangju, Korea
- 2001 *Women and Time, Women and Space*, Alternative Space Pool, Seoul, Korea
The Spirit of May. The Lost, Gwangju Museum of Art, Gwangju, Korea
- 1999 *Women's Art Festival 99: Patjis on Parade*, Seoul Arts Center Hangaram Museum, Seoul, Korea
Korean Women's Photography Association, Women's Rice Bowls, Seoul Arts Center, Seoul, Korea
99 Seoul Photographs. The Photograph Look at Us,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 1998 *98 Seoul Photographs*,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The Visual Extension of Photographic Image. Reality and Fantasy,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Korea
Expression of the Inexpressible, Posco Gallery, Seoul, Korea
- 1995 *Ssak*, Art Sonje Center, Seoul, Korea
50 Years of Liberation History and Art – Where are We?, Hangaram Museum, Seoul Arts Center, Seoul, Korea
- 1996 *Photography is Photography*, Samsung Photo Museum, Seoul, Korea
- 1994 *Woman, the Difference and the Power*, Hankuk Museum, Seoul & Gallery Hankuk, Yongin, Korea
Korean Modern Photography 1945-1994, Hangaram Museum, Seoul Arts Center, Seoul, Korea
Woman and Reality, Gallery 21st Century, Seoul, Korea
- 1992 *The Women and Reality*, Geurimmadang Min, Seoul, Korea
- 1988 *Wuri Botmureul Teuja*, Geurimmadang Min, Seoul, Korea
- 1980 *3rd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hotography Exhibition*, Publication Culture Center, Seoul, Korea

AWARDS

- 2025 Art (Visual Arts) Division, Korean Culture and Arts Awards, Korea's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Korea
- 2020 Lee Joong Sub Art Prize, Korea

SELECTED COLLECTIONS

Victoria & Albert Museum, UK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Seoul Museum of Art, Korea
 Photography Seoul Museum of Art, Korea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Korea
 Gwangju Museum of Art, Korea
 Cheongju Museum of Art, Korea
 Sungkok Museum, Korea
 Hanmi Photo Museum, Seoul, Korea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Korea
 Research Institute of Asia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Korea
 Ewha Women's University Museum, Korea
 ARARIO Collection, Korea

[Appendix 1]

“A Flower Shakes Her” by KIM Hyesoon

A Flower Shakes Her

KIM Hyesoon

If earth is not mad,
 How can it bloom a flower?

 The madness rising from woman’s body
 Is a flower rising from her body
 Madness blooms a flower
 This is the most beautiful birth
 Opening of a soul
 Hidden, oppressed under earth
 That is the opening of a flower

 If a woman is not mad,
 How can she sing and dance
 Look,
 That woman sings and dances
 That flower is blooming
 From the madness of the earth

[Appendix 2]

“The Place 2—Burning of a Witch” by KIM Hyesoon

The Place 2—Burning of a Witch

KIM Hyesoon

The whip may not strike me,
 but I am stripped naked.
 My naked body
 is drenched with water.
 Steam rises,
 fog forms.

 Next—fathers appear.
 They close the curtain before me.
 Silky soft! Yet a steel curtain!
 Cottony soft! Yet thicker than a quilt!
 Next—I am whipped with words.
 Next—I am fed ink.
 My body brims over with ink.

 At last, stripped and beaten,
 clothed in the heavy garments of rebuke,
 I vomit writing all over my body.
 The same secret prophecy
 made centuries ago.
 With flames hung all over my body.